

재혼가정의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김 연 옥

(서울시립대학교)

[요 약]

가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극심한 사회변동중의 하나는 재혼의 급증이다. 2002년 전체 혼인의 21%를 차지할 정도의 재혼율 상승, 여성 재혼율의 남성우위현상, 재혼의 불안정성과 높은 재이혼율 등은 사회적 관심과 개입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증가하는 재혼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재혼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적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관심을 끄는 사실은 재혼의 놀라운 증가와는 달리 재혼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점, 재혼자들이 재혼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대신에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과 사회적 통념만이 크게 존재한다는 점 등이었다. 따라서 재혼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혼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많은 환상들에 도전하여 재혼의 실재를 현실적으로 인식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혼을 초혼에 준거하여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재혼가족 나름의 발달과정을 거치며, 재혼가족에서 보이는 갈등이나 마찰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현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재혼, 재혼율, 재혼가족,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1. 들어가는 글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극심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2003년 한 해만 보더라도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심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또한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이 47.4%로 OECD국가 중 2002년의 4위에서 2위로 이혼율이 두 단계나 상승하였으며, 출산

* 본 연구는 200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재혼가족 1)의 급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혼가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혼의 유형면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적인 면을 보면 1980년에 전체 혼인의 5.9%를 차지하였던 재혼이 1990년에 8.0%, 1995년에 10.3%, 2000년에 18%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전체 혼인에서 재혼비율이 21%로써 결혼하는 5쌍 중 1쌍이 재혼부부임을 알 수 있다. 재혼의 유형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변화는 여성의 재혼이 현격히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970년에는 재혼남+초혼녀의 혼인이 초혼남+재혼녀보다 4배 이상 높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 1999년의 경우 전체결혼의 9.6%를 차지하는 재혼남+재혼녀 유형의 뒤를 이어 초혼남+재혼녀가 전체 결혼의 4.9%를 차지하면서 3.5%의 재혼남+초혼녀 유형을 앞지른 자료에서 재혼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재혼율이 21%로 증가한 2002년에도 재혼유형의 비율에 따른 순서는 변함이 없이 11.6%, 5.6%, 3.8%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초혼남+재혼녀와 재혼남+초혼녀 혼인의 비율 간극은 1.4%였던 1999년에 비해 2002년에는 1.8%로 넓어진 것으로 나타나 전자의 재혼유형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3). 이러한 재혼유형의 패턴은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의 재혼율을 앞서는 결과를 가져와 2000년의 경우 남성의 재혼율이 13.1%, 여성은 14.5%를 기록하였다(장병욱, 2002: 8).

재혼율의 급격한 증가와 재혼유형의 변화, 재혼율의 여성 우위현상 등은 재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고 더 나아가 죄악시까지 하였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규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초혼남과 미혼모의 결합, 초혼남과 전남편 자녀가 있는 이혼녀의 결합 등이 결혼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 남녀들에게 조사한 결과,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남자의 53%, 여자의 50%가 재혼할 것이라고 응답해 재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김연옥, 1999).

재혼가족의 증가와 혼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 특히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학문적, 실천적 관심은 더욱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재혼의 특성으로 인해 재혼가족은 초혼가족에 비해 가족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은 가족의 구조, 기능, 가족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초혼가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다. 경계가 불분명한 가족관계, 부부관계보다 먼저 형성된 부모자녀관계,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생활주기상의 불일치, 두 부모의 존재, 복잡한 친족관계 등 복잡한 특성은 동시에 재혼가족의 취약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은 결혼의 60% 이상이 재혼이며 재혼

1)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이라 함은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서, 혹은 어느 한쪽에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전혼자녀가 한 명이상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계부모가족(stepparent family)과 동의어이다. 양 배우자 모두에게서 전혼에서의 자녀가 없는 재혼가족은 재혼가족의 보편적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초혼핵가족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인 미국에서도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통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초혼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70%에 이르고, 세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는 90%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원제,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초혼보다는 재혼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재혼율의 상승은 바로 가족해체율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하겠다.

재혼가족의 복잡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역할수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행위양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재혼가족은 거의 '무규범적인 진공'상태에 놓여진다고 하겠다. 재혼율이 높은 미국사회에서도 재혼가족 형성이 다른 생활 사건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하물며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의 미미했던 우리 사회의 경우 재혼가족이 겪는 문제의 다양성과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혼가족의 양적 증가와 그 본질적 취약성은 재혼을 더 이상 개인적 경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사회적 현상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그동안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저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가서야 관련 연구가 한두 개씩 수행된 정도이고, 재혼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²⁾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개입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도되었다. 재혼가족의 태생적 취약성과 사회적 행위양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재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재혼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시론적 문헌연구로서, 재혼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과 요건을 모색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 수행한 연구 내용은 첫째, 초혼과 구별되는 재혼만의 특성을 분석하여 재혼의 취약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초혼핵가족 중심의 결손비교 관점을 비판하고, 재혼 나름의 가족발달과정을 강조하는 발달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특성과 문제점을 부부, 계부모-계자녀, 의붓형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재혼가족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재혼가족 기능향상 프로그램의 기본적 방향과 요건을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는 가정학분야에서 수행된 3편의 연구, 즉 임춘희(1998),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경(2000), 현은민(2002)의 연구가 전부이다.

2. 재혼의 특성

1) 준비 안된 결혼

재혼은 그 결혼의 특성상 초혼보다 더 많은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재혼으로 인한 가족형성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서, 가족구조와 조직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는 중대한 전환기이다. 계자녀의 존재, 계부모역할과 같은 불명확한 역할, 재혼과 전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욕구에 대한 자원의 분배 등 가족들은 생활패턴과 규칙, 의사소통방법, 역할수행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초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이 재혼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Lyster, Russell, and Hiebert,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재혼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재혼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ssinger, Walker, and Freeman, 1978; Meyerstein, 1997). 가농과 콜만(Ganong and Coleman, 1989)의 연구에 따르면 재혼가족의 25% 미만 정도만이 계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그룹(support group)에 참여하였으며, 재혼과 계부모 역할에 대한 잡지 기사와 지침서들을 읽은 경우는 50%도 안될 정도로 재혼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전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재혼남녀의 15.7% 정도로 서구사회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민가영, 2002).

재혼시 이처럼 준비가 소홀한 것 외에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재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나 환상을 품거나, 재혼이 초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점이다. 가농·콜만(1989)은 재혼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재혼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즉 재혼자들은 재혼에 대해 준비하기보다는 재혼생활에 대해 낙관적이고 '순진'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의 57%, 모의 44%가 자신들의 친자녀들과 새로운 파트너의 관계가 좋을 것으로 낙관하였으며, 계부모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재혼자들의 경우에도 계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재혼자들은 재혼과 관련하여 재혼전에 전문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의 중요한 이슈라고 전문가들이 빈번히 지적해온 것들에 대해서조차 재혼전 배우자들 상호간에 거의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nong and Coleman, 1989). 더욱이 재혼한 이후에도 계자녀훈육이나 재정문제와 같은 재혼생활의 가장 큰 사안에 대해서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aplan and Hennon, 1992) 재혼전·후의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하겠다.

2) 불안정한 결혼

재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중의 하나는 “초혼핵가족 복원의 신화”(myth of the re-created nuclear family)³⁾로서, 재혼과 더불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잃어버린, 혹은 파괴된 초혼의 가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Jacobson, 1979: 203-204).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혼가족은 가족역동성, 가족경험, 상호간의 기대 등 여러 부분에서 초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잡 다단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초혼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낳는다(Kaplan and Hennon, 1992: 128). 결과적으로 계부모와 계자녀들은 불확실함, 불안정, 스트레스 등을 초혼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또한 초혼부부들보다 낮은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Nelson and Levant, 1991: 291).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재혼가족의 취약성은 재혼의 이혼율을 통해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경우 초혼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계자녀가 있는 재혼의 이혼율은 계자녀가 없는 재혼의 두 배라는 통계(Meyerstein, 1997: 61)는 재혼가족의 특성과 가족취약성의 관련성을 좀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의 이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재혼 실패율을 대략 60%정도로 추정하여 초혼보다 높게 보고 있다(유나니, 2002: 75).

재혼의 불안정성과 높은 이혼율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혼이 실패하는 요인들은 개인 내부와 개인들 간,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혼성향가설

이혼성향가설은 초혼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과, 초혼과 재혼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나한(Monahan, 1952)과 맥크래니와 칸(McCranie and Kahan, 1986)은 이혼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있으며, 초혼과 재혼에서의 이혼은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성격결함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즉,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1980, 90년대까지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지만 경험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자료는 많지 않다. 이 이론은 결혼을 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적 태도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정당화시킨다는 면에서 비판받기도 한다(Ganong, Coleman, and Mapes, 1990). 셔린(Cherlin, 1978)은, 초혼의 결혼안정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 즉 많은 나이, 풍부한 경험, 성숙됨 등의 요인들이 재혼의 안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히 재

3) 제이콥슨(Jacobson, 1979)이 의미하는 핵가족은 대가족에 대비한 개념이 아니라 재혼, 혹은 삼혼에 의해 형성된 가족에 대비하여 초혼에 의해 생리학적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핵가족 대신에 초혼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혼의 안정성을 성격문제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이혼선택가설

이 가설은 재혼한 부부들의 경우 초혼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혼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재혼부부들은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휠스텐버그와 스페니어(Furstenberg and Spanier, 1984)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재혼한 사람들은 초혼의 문제를 이혼으로 해결한 사람들로써, 결혼이 불행하다고 느낄 경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즉 이혼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혼자들은 그들의 초혼에서보다 재혼에서 결혼의 불행을 더욱 참지 못하고 해결방안으로서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혼과 재혼의 이혼패턴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재혼해체가 초혼해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결혼이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초혼보다 재혼이 50%정도 더 많고, 10년 이내에는 20%, 25년 이내에는 10% 정도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Furstenberg and Spanier, 1984: 435). 부쓰와 에드워드(Booth and Edwards, 1992)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초혼과 재혼의 결혼생활에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 없을 때 재혼부부는 빨리 그 결혼을 끝내기 때문에 재혼에서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혼선택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재혼의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재혼한 사람들의 88%가 자신들의 재혼생활이 초혼 때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조사된 알브레트(Albrecht, 1979)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쓰·에드워드(1992)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겠다.

(3) 불완전제도가설

재혼은 불완전한 제도이고 그래서 재혼이 불안정하다는 가설은 서린(1978)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기서 ‘제도란, 서린에 의하면, 가정의 안정과 유대에 기여하는 가족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유형화된 사회적 역할, 지침, 사회적 규범 등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한대로 재혼생활이란 초혼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생활을 안내해 줄 사회적으로 양식화된 행동양식이나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혼가족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재혼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이혼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부모로서 계자녀의 훈육과 교육에 어느 정도로 간여할 것인가, 계자녀의 친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배우자의 전혼 배우자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한 자녀에 대한 두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된 사회문화적 기대 등으로 인해 역할상의 모호함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설이 제기된 이후에 최근까지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휘셋과 랜드(Whitsett and Land, 1992)는 역할모호성, 역할경계의 불명확성, 역할갈등 등의 하위개념으로 재혼부부의 역할수행을 측정한 결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클수록 재혼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여 재혼모의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연구한 김연옥(199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드러났다. 반면에 휠스텐버그와 스페니어(1984)는 경험적 연

구를 통해 전혼에서의 자녀유무가 재혼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재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화된 방식이 없어서 재혼해체의 위험이 높다는 서린의 불완전제도가설을 부인하였다.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더라도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는 것은 이 가설이 나름대로 재혼의 사회적 현실을 적시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결손비교관점

1980년대까지 미국의 재혼연구의 지배적인 시각은 결손비교관점(deficit-comparison perspective)이었다. 이 관점은 재혼가족을 초혼핵가족에 비교하여 재혼가족의 기능적이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고 지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지향적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갈등적 관계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이 관점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재혼가족이 초혼핵가족에 비해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가농과 콜만(1994)은 이 관점이 초혼핵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구조적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문제점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관점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가농과 콜만(1989)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재혼가족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이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지향적 시각이 재혼가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문제집단인 듯한 암시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즉 재혼가족들은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의해 모르는 사이에 재혼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들만 보게 되거나, 전에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던 행동도 문제행동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재혼가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잘 적응하여 기능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들(Duberman, 1973; Knaub, Hanna, and Stinnett 1984; Anderson and White, 1986)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혼가족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연구들은 1) 재혼가족의 복잡성과 이질적인 재혼가족 형태에 대해 적은 관심, 2) 잠재적 강점과 장점보다는 문제점과 약점에 주안을 둔 점, 3) 재혼한 가족관계가 근본적으로 초혼핵가족 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Ganong and Coleman, 1994: 37).

4) 휠스텐버그·스패니어(1984)는 서린(1978)의 불완전제도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혼에서의 자녀유무와 재혼의 불안정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은 계자녀의 존재가 재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면서 동시에 재혼가족이 역할상의 모호함과 혼란을 많이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발달적 관점

발달적 관점은 초혼핵가족의 기준에서 재혼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혼가족들과는 다르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계와 상호작용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관점은 재혼가족의 병리적 현상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재혼가족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주안점을 둔다. 발달적 관점은 임상을 통해 재혼가족들을 심층적으로 면접한 연구자들이 재혼가족들이 공통된 발달단계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적응한 재혼가족이 이행한 단계별 과제들을 경험적으로 정리하여 정립한 모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발달모델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여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한 페이퍼나우(Papernow, 1984)의 모델이다. 그의 모델의 장점은 재혼가족의 발달상의 변화를 개념화하여 단계별 발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재혼가족에게 적절한 제안을 하기에 유용하다는 점이다. 건강한 부부나 가족은 이러한 단계를 잘 이행하여 가족기능을 최대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단계별 발달과제 수행을 실패하게 되면 가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불완전하며 해체에 이르기도 한다.

페이퍼나우(1984)가 제시하는 재혼가족 발달단계는 크게 초기의 ‘출발’단계, 중기의 ‘재구조화’단계, 말기의 ‘재혼가족 굳히기’ 단계로 구분된다. 출발단계는 1) 환상(fantasy), 2) 혼돈(assimilation), 3) 자각(awareness)의 단계로 세분되고, 재구조화단계는 4) 동원(mobilization), 5) 행동(action)으로, 굳히기 단계는 6) 접촉(contact), 7) 해소(resolution)로 세분하여 재혼가족발달단계를 총 7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출발단계

초기단계인 출발단계는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함께 시작한 재혼생활에 대해 실제적 접촉을 통해 현실적 인식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출발단계의 첫 단계인 환상단계에서 재혼가족 구성원들이 보이는 특징은 재혼에 대한 환상과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이러한 환상은 전혼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재혼에 대한 정보부족 혹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나 신념체계에 근거한 것들이다. 두 번째 단계인 혼돈단계는 재혼생활이 현실과 접촉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재혼가족의 성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나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초기단계의 마지막인 인식단계에서는 재혼가족들 모두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명확해지며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감정과 바람, 욕구 등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의 감정과 욕구들이 있음을 이해하는 자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단계에 와서 가족들은 환상에서 벗어나 재혼생활이 초혼과는 다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고, 재혼가족 내부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재혼가족내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것은 주로 계부모이다. 왜냐하면 계부모가 진입하기 전 이미 가족을 형성하고 있던 친부모에게는 기존의 가족규범이나 가족경계 등이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초기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재혼가족들이 대다수이다. 초기단계를 거처가는 속도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상호 지지적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연구에 의하면 초기단계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년에서 3년이라고 한다.

② 재구조화단계

이 단계는 전 단계에서 인식된 변화의 필요성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재혼가족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동원단계는 현실적으로 인식된 재혼생활을 능동적으로 직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상호간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인식, 욕구,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가족 성원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는데, 이 시기에 보이는 가족간의 갈등과 다툼은 재혼전의 가족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즉 미래지향적인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은 흔히 계부모에 의해 촉발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가족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부모는 흔히 친부모-자녀체계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결정적 과정을 주도하는 변화의 매개체가 된다. 이 시기에 친부모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기존의 구조는 기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는 새로운 관계, 즉 새로운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 양자 사이에서 친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행동단계는 재혼전의 가족체계를 ‘녹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족간에 확인된 구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과제를 완수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로 기존의 것들 대신에 새로운 의식, 규칙, 행동양식 등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가족구조가 형성된다. 즉 부부와 자녀간의 새로운 경계, 계부모와 계자녀 경계의 확립 등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친부모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부부가 비로소 한 단위(unit)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중간단계의 변화도 매우 더디게 발생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동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발달한 재혼가족의 경우 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 후 처음 3년에서 4년 사이가 재혼가족의 유지 혹은 붕괴를 가름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Ganong and Coleman, 1994: 360). 즉 행동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치면, 즉 새로운 가족구조 창출에 성공하게 되면 재혼가족은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되며, 그렇지 못하면 재혼가족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재혼가족 굳히기 단계

이전까지의 단계가 재혼가족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재혼가족 굳히기 단계에서는 재혼가족 구성원간에 친밀감과 애착이 발달하고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첫 단계인 접촉단계에서 계부모, 계자녀를 모두 하나의 경계로 묶는 “we”의 가족 개념이 정착된다. 이 시기에 와서야 계부모는 자신의 계부모 역할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소단계에서는 재혼가족의 규범이 확립되고 가족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가족들 각자의 역할과 관계형성 방법에 대해 감각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재혼가족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단계에 이르면 그러한 갈등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을 정도로 재혼가족의 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재혼가족 특유의 역설적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예컨대 계자녀에 대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계부모는, 계자녀가 동성의 친부모를 방문하는 동안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재혼가족들은 그들의 마지막 환상, 즉 초혼핵가족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리는 시기가 된다. 이 시기에 성숙한 계부모의 역할은 “가장 가까운 외부인”이다. 즉 계자녀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고, 친부모에게 털어놓기에는 위험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외부인이다. 예컨대 동성의 친부모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친구관계, 성문제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4. 재혼의 가족관계

1) 재혼가족의 유형

‘개념’은 여러 현상들 속의 보편적 요소를 드러냄과 동시에 현상 각각의 개별성은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각 현상들의 개별성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현상의 본질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 그러나 ‘재혼가족’의 개념만큼은 예외인 듯 하다. 재혼가족이라는 개념의 현실적 현상을 보면 보편적 공통성보다 개별적 독특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재혼가족이라고 통칭되는 가족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며, 이 유형에 따라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역동성, 노정하는 문제 등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재혼가족이라 총칭하여 재혼가족을 다루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농과 콜만(1994)은 재혼가족은 너무도 복잡하여 연구자에게 좌절감을 일으킬 정도라고 토로한 바 있다.

재혼가족의 유형을 논할 때 연구자들이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전혼에서의 자녀유무와 이들과의 동거여부, 재혼에서의 자녀유무 등이다. 우선 전혼에서의 자녀유무만 적용하여 재혼가족의 유형을 분류하면 3개의 유형이 가능하다.⁵⁾ 여기에 이들 전혼자녀들의 동거여부를 하나 더 적용하면 총 8개의 재혼가족 유형이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서 재혼에서의 자녀출생 여부를 더하게 되면 재혼가족 유형은

5) 재혼부부중 부에게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에게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보면 전혼자녀가 모두에게 있는 유형, 부에게만 있는 유형, 모에게만 있는 유형, 모두에게 없는 유형 등의 4개 유형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없는 유형은 성격적으로 초혼핵가족과 같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재혼가족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외형적 기준에 의한 가족유형 외에 가족에 대한 재혼가족 성원들의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정의를 고려하면 가족유형의 수는 끝없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아이에게 “가족이라고 할 때 누구를 떠올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계모와 이복형제를 제외하고 여전히 따로 살고 있는 친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혼의 해체사유도 재혼가족 개념에 상당한 차이를 불러온다. 사별후 재혼과 이혼후 재혼은 재혼가족의 복잡성에 상당한 차이를 불러온다. 사별후 재혼이라면 계부모가 친부모를 ‘대리’하는 개념이지만 이별후 재혼이란 ‘부가된’ 부모, 즉 두 개 가족개념이 되면서 매우 복잡한 역동성을 낳는다(Wald, 1981).

이처럼 복잡한 재혼가족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유형에 따라 재혼가족의 기능과 역동성, 직면하는 문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이런 다양함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는 계자녀가 있는 경우 계자녀의 방문횟수, 방문했을 때의 관계형성 등이 주요 가족 이슈가 되고, 동거하는 계자녀인 경우 혼육과 양육의 문제, 반쪽 혹은 의붓형제(6)간의 갈등, 동거하는 친부모들 사이에 둔 계자녀와 계부모간의 애정갈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2) 부부관계

초혼에 비해 재혼은 로맨틱한 동기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nong and Coleman, 1989). 즉 경제적 안정, 자녀양육부담의 공유,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건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예컨대, 전혼 실패를 재혼에서 과도하게 보상받으려는 심리, 배우자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 혼자 감당해온 아동양육의 부담을 배우자가 분담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 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다(Ganong and Coleman, 1994). 이러한 기대는 재혼생활의 초기단계에서 재혼자들에게 심한 혼란과 좌절감을 안겨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인식과 기대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혼에 대한 기대는 전혼 해체의 경험과 혼자 되었을 때의 남녀간의 서로 다른 경험에 따라 남녀간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혼자가 되었을 때 생계책임과 부양책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친구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망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 자신감 등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이스터 외, 1995). 이러한 경험이 재혼시 여성으로 하여금 평등적인 부부관계와 의사결정, 책임분담을 기대하게 된다. 반면에 남성은 전혼 실패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전혼 생활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재혼에 부여하는 경향이 며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관계를 기대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 남

6) 반쪽형제란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부모가 아닌 한 쪽 부모와 생물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제관계를 의미하며, 의붓형제란 생물학적인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관계이다. 예컨대 전혼자녀를 가진 남성이 전혼자녀를 가진 여성과 재혼했을 때 이들 전혼에서 얻은 자녀들간의 관계가 의붓형제관계이다.

성재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아동양육을 포함한 '주부'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삶의 동반자로서의 개념은 부차적인 반면, 여성재혼자는 '마음에 맞는' 남성을 찾는 경향이이라고 보고하면서, 따라서 이들이 재혼하였을 경우 가장 당면한 과제는 서로 다른 기대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장혜경·박경아, 2002: 87). 재혼부부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재혼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Guisinger, Cowan, and Schuldberg, 1989).

3) 계부모-계자녀관계

계부모-계자녀관계는 재혼가족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Crosbie-burnett, 1984) 가족내 주요 스트레스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혼가족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계에 대한 재혼자들의 사전 지식과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실성이 결여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농·콜만(1989)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재혼자들이 재혼생활에 대해 낙관적이고 '순진'하게 접근한다고 지적하면서, 재혼남성의 57%, 재혼여성의 44%가 자신들의 친자녀들과 새로운 파트너의 관계가 좋을 것으로 낙관하였으며, 계부모가 되는 재혼자들의 경우에도 계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밝혀냈다. 페이퍼나우(1984)에 따르면 친부모는 자신이 맞이하는 배우자가 자신들의 자녀를 사랑하며 아이들도 새 배우자를 환영한다고 생각하고, 계부모 또한 계자녀와의 관계가 빠른 시간내에 쉽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나 기대는 환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계부모-계자녀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계부모 이전에 형성된 친부모-자녀간의 '지나치게 밀접한 세대간 경계', '인스턴트 사랑(instant love)'의 신화,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혼 해체후 편부모가족의 상태에서 편부모와 자녀는 과도하게 밀접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Papernow, 1984: 356). 이처럼 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친부모가 재혼하게 되면 자녀는 계부모가 친부모와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방해하는 '아우사이다'로 간주하여 계부모에게 냉담하며 거부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계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비현실적인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계부모들은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호감이나 사랑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는, 즉 인스턴트 사랑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인스턴트 사랑에 대한 환상은 더 발전하여 계부모에게 빠른 시간내에 계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담감과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의 압박감이 동시에 작용하여 계부모들은 계자녀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된다(Ganong and Coleman, 1994).

계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 갈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계부모의 노력은 양자간의 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자녀와의 관계가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계부모는 친부모와 자녀간에 형성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관계가 매우 강하고 견고하여 실패하는 경우 계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인 계자녀들

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전혼이 이혼으로 끝난 경우 아동들은 친부모들이 언제인가 다시 결합하여 이전의 가족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며, 계부모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Papernow, 1984). 따라서 계부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친부모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혼 해체사유가 사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 자녀들의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르위스(Lewis, 1980)는 충성심 신화(loyalty myth)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자녀들을 이중으로 구속(double bind)하게 되는데, 즉 계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또다른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갈등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있는 계부모들은 계자녀와의 관계형성의 시도-실패-후퇴-재시도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자녀들을 보면서 좌절, 분노, 자책의 감정을 갖게 되고 동시에 계자녀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기 쉽다.

3) 의붓형제

재혼가족에서 가능한 형제관계는 친형제, 의붓형제, 반쪽형제이다. 재혼가족의 형제에 관한 관심은 재혼가족의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특히 친형제, 반쪽형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고, 형제에 관한 많지 않은 연구의 대부분은 의붓형제에 관한 것이다(Ganong and Coleman, 1994). 의붓형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쟁의식인데, 친형제의 경쟁의식은 서열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반면에, 서열의식이 희박한 의붓형제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되고, 친부모들의 별거나 이혼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의붓형제간의 마찰이나 갈등은 더 크다고 한다(Walsh, 1992: 711). 반면에 의붓형제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스킨·커비·로빈슨(Skeen, Covi, and Robinson,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의붓형제관계는 재혼가족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의 관계가 좋을수록 재혼가족 전체의 통합이 좋아진다고 한다.

5. 재혼가족 기능향상 프로그램 요건

지금까지 재혼의 특성, 재혼가족의 특성,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재혼가족 기능향상 프로그램의 기본적 관점과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초혼핵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초혼가족과 다른 재혼가족의 특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재혼으로 초혼핵가족을 복원할 것이라는 기대, 재혼가족의 문제를 초혼핵가족을 기준으로 보려는 관점 등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초혼 핵가족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7) 친부모에게 충성하기 위해 계부모를 거절하면 계부모에게 미안하고, 계부모를 인정하면 친부모에게 죄책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중구속이라고 한다.

초혼핵가족 복원의 기대란 재혼과 더불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잃어버린, 혹은 파괴된 초혼의 가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제이콥슨, 1979: 203-204).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혼은 초혼과는 전혀 다른 가족역동성, 가족생활, 상호간 기대를 하게 되며, 흔히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다기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프로그램이 인식시켜야 하며, 초혼과 다른 점이 '결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나치게 밀접하여 세대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친부모-자녀간의 경계는 초혼 핵가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이지만 재혼가족 나름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단계의 재혼가족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혼가족을 '정상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재혼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2) 재혼가족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혼가족은 한 개념으로 통칭되기에는 유형간에 매우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 보았다. 현실적으로 유형을 나누는 모든 기준을 고려할 수는 없더라도 재혼가족의 특성의 가장 큰 결정요인인 계자녀 동거여부, 전혼해체사유 등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자녀가 한 집에 동거하느냐, 아니냐는 재혼가족의 특성에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동질성의 재혼가족들로 프로그램대상을 구성한다면 좀더 공통된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해정(2000)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내용에 대해 전혼해체가 이혼인 사람들과 사별인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이혼자와 사별자를 분리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재혼가족 모두에 대한 평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재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주의할 것은 재혼가족 성원 모두의, 즉 친부모, 계부모, 자녀 등,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적응수준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누구도 공격이나 비난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가족이 서로간에 기대를 표현하도록 하여 타협점을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협이란 모두에게 상실이나 양보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개인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재혼가족들이 쉽게 회피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재혼가족들로 하여금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는 것이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며, 결과적으로 재혼가족의 기능에 긍정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제이콥슨, 1979).

4) 재혼가족의 환상에 도전하여야 한다.

(1) 인스턴트 사랑(instant love)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계부모-계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나 행복한 관계, 사랑의 감정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는 영원히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Tumblull and Tumblull, 1977)을 재혼가족들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초기의 재혼가족에게서 보이는 재혼생활에 대한 갖가지 환상은 보편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태도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은 분명하다. 재혼하는 배우자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 혹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

명 환상이며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이러한 환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럴 경우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대였다고 깨닫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럴 경우 계자녀나 계부모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계부모는 성인으로서 좀더 책임을 느끼고 자기비하적 갈등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환상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계부모나 계자녀들이 관계발전을 위해 조금씩 서둘거나 혹은 실패할 경우 스스로를 비난하는 감정소모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2) 계자녀의 충성심 신화(loyalty myth)에 도전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계부모들은 즉각적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자녀에게 접근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냉담과 거절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계부모들은 자신들의 부모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것은 상대인 계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즉 계자녀들은 친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며,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계부모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흔히 자녀들을 이중구속(double bind)하게 되는데, 즉 계부모에 대한 정서적 관계가 좋아질수록 더 큰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계부모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계자녀들을 보면서 좌절, 분노, 자책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이러한 심리상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율배반적 심리상태에 놓여 있는 계자녀들에게는 감정적 환기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5) 부부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재혼에 대한 남녀간의 기대감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전혼이 해체된 후 혼자가 되었을 때의 생활경험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서로 다른 경험은 재혼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여성은 혼자가 되었을 때 생활과 아동양육 등을 독립적으로 감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역할상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전혼 해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위축되는 경향이라고 한다. 이처럼 혼자가 되었을 때의 서로 다른 경험의 결과로 여성은 좀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평등적인 결혼생활을 기대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남녀관에 대한 변화가 없이 전혼에서와 동일한 기대를 갖는 경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재혼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생활에서 발생하는 의견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통해 재혼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계부모-계자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새 엄마', '새 아빠'를 강요하기보다는 '친구'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재혼은 초혼핵가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랑의 정서적 유대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는 계부에게, 계자녀들에게 친부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Ganong and Coleman, 1994). 그러나 전

문가들은 계부역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바람직한 계부모-계자녀의 관계는 ‘친구’관계이다. 드라우튼(Draughton, 1975)은 계모가 ‘새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자녀의 ‘친구’가 될 때 훨씬 나은 계모-계자녀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알쉬, 1992에서 재인용).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친부모와 계부모, 그리고 친자녀와 계자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장혜경·박경아(2002)는 계부모가 계자녀들에게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가서는 것이 둘의 관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 7) 계부모에게 정서적 환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계부모 스스로가 간혀 있는 계부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재혼가족중에서 계부모의 역할이 매우 독특하고 어려운 도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 만큼 계부모가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자칫 재혼가족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비난받는 위치에 놓이기 쉽다. 계모의 경우 전통적인 부정적 선입견을 없애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실패하였을 경우 자신 스스로를 탓하여 심한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재혼가족 발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자녀들로부터 냉담한 거절을 당할 때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조차 자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계부모의 이러한 정서적 갈등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전배우자에 대한 질투나 분노의 감정, 계자녀들에 대해 ‘참을 수 없이’ 느껴지는 분노나 원망의 감정, 계자녀를 자신보다 우선하여 ‘편드는’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의 감정, 등 계부모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의 인간적 미성숙 때문이 아니며, 이러한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개적인 표출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감정을 가졌고, 그런 감정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스런 반응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부모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진은 계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계자녀와의 새로운 우호적 관계의 출발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 8) 재혼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프로그램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재혼가족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부의식이나 가족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재혼가족의 발달과정의 중간단계 이후부터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가족내에서 부모, 계부모, 계자녀 모두 각자가 기대, 혼란, 인식의 단계들을 경험한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재혼가족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초점을 두어 재혼생활에 대한 인식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단계 이후, 특히 동원단계 이후의 재혼가족의 어려움은 가족체계의 문제이므로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apernow, 1984: 362).

9) 재혼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야 하다.

위에서 기술한 대로 재혼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프로그램이 역점을 두는 대상과 목표가 달라진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과제도 서로 다르다. 출발단계의 발달과제는 재혼가족들의 비현실적인 희망과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혼생활의 현실을 인식할 때까지 가족간의 감정과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다. 재구조화 단계의 발달과제는 가족들이 자신이 깨달은 것, 욕구,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재혼가족의 새로운 의례와 관습, 행동 코드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말기단계인 재혼가족 굳히기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축한 가족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초점 대상과 목표, 발달과제 등에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6. 맺는 글

우리나라에서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가족문화와 혼인양상은 재혼을 더 이상 개인사적 경험으로 간과하는 것이 무리임을 강변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2002년도 혼인유형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이르고 있고,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의 재혼율을 앞지르는 여성우위 현상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던 전통적 문화를 고려하면 커다란 변화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여 재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킬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재혼의 숫적 증가나 재혼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재혼 특유의 불안정성은 재혼에 대한 연구와 개입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재혼에 대한 정보부족과 비현실적인 환상, 검증이 안된 사회적 통념이 난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5쌍 중의 1쌍이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재혼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하거나 준비나 대비를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각자의 제한된 정보와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재혼은 처음부터 재혼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침이나 사회적, 개인적 지원의 부재는 재혼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혼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혼의 특성과 재혼가족의 특성, 재혼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재혼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적 관점과 요건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사실은 재혼의 놀라운 증가와는 달리 재혼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점, 재혼자들의 재혼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대신에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이 크게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재혼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혼의 현실적 실체를 정확히 인식시킴과 동시에 재혼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많은 환상들에 도전하여 현실적 인식을 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혼가족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초혼가족을 준거로 하여 재혼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초혼 핵가족주의의 관점으로 재혼가족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마찰을 ‘일탈’, 또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현상들을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혼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개인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혼가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주는 재혼가족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는, 즉 프로그램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법, 운영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논외로 하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제안하며, 이러한 연구들의 선행작업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요건은 재혼가족과 그 내부 구성원에만 초점을 두고, 가족의 상부체계, 즉 친족관계, 친구관계 등은 논외로 하였다. 가족이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한 가족을 둘러싼 상부체계와의 상호작용은 재혼가족의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친족관계는 재혼가족의 역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혼가족 기능향상과 관련된 주요 요인인 재혼가족의 상부체계에 대한 부분을 논외로 한 것은 재혼가족 기능향상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누락시킨 것으로써 본 연구의 커다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추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연옥. 1999. “재혼가정 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1-62.
- 유나니. 2002. “당당한 재혼이 늘고 있다”. 주간조선, 1693: 74-75.
- 임춘희. 1998. “재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69-90.
- 손원제. 2002. “새엄마·새아빠를 당당하게”. 한겨레21, 409: 40-42.
- 장병욱. 2002. “재혼”. 주간한국, 1911: 8-9.
- 장혜경·민가영.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박경아. 2002. 당당하게 재혼합시다. 서울: 조선일보사.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5): 1-13.
- 통계청. 2003. 2002년 혼인 이혼 통계.
- 현은민. 2002.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153-172.
- Albrecht, S. L. 1979. “Correlates of Marital Happiness among the Remarri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57-867.
- Anderson, J., and G. White. 198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active and Relationship Patterns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Nuclear Families and Stepfamilies.” *Family Process* 25: 407-422.
- Booth, A. and J. N. Edwards. 1992. “Starting over: Why Remarriage are More Unstable.” *Journal of*

- Family Issues* 13: 179-194.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3): 634-650.
- Crosbie-Burnett, M. 1984. "The Centrality of the Step Relationship: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33: 459-464.
- Duberman, L. 1973. "Step-kin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283-292.
- Duncan, S. F. and G. Brown. 1992. "Renew: A Program for Building Remarried Family Strength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March: 149-158.
- Furstenberg, F. F. Jr., and G. B. Spanier.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iage: An Examination of Cherli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 Ganong, L. H. and M. Coleman. 1989. "Preparing for Remarriage: Anticipating the Issues,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38(1): 28-33.
- _____.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Guisinger, S., P. Cowan, and D. Schuldberg. 1989. "Changing Parent and Spouse Relations in the first Years of Remarriage of Divorced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45-456.
- Ganong, L. H., M. Coleman, and D. Mapes. 1990. "A Meta-analytic Review of Family Structure Stereo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287-298.
- Jacobson, D. S. 1979. "Stepfamilies: Myths and Realities." *Social Work* 24: 202-207.
- Kaplan, L. and C. B. Hennon. 1992. "Remarriage Education: The Personal Reflections Program." *Family Relations* 41: 127-134.
- Knaub, P., S. Hanna. and N. Stinnett. 1984. "Strengths of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7: 41-55.
- Lewis, H. C. 1980. *All about Families: The Second Time around*. Atlanta, GA: Peachtree.
- Lyster, R. F., M. N. Russell, and J. Hiebert. 1995. "Preparation for Remarriage: Consumers' View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4(3/4): 143-157.
- McCranie, E. W., and J. Kahan. 1986. "Personality and Multiple Divorc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3): 161-164.
- Messinger, L., K. N. Walker, and S. J. J. Freeman. 1978. "Preparation for Remarriage Following Divorce: The Use of Group Techniqu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2): 263-272.
- Meyerstein, I. 1997. "The Problem Box Ritual: Helping Families Prepare for Re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8(1): 61-65.
- Monahan, T. P. 1952. "How Stable are Re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8: 280-288.
- Nelson, W. P., and R. F. Levant. 1991. "An Evaluation of a Skills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in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40: 291-296.
- Papernow, P. L. 1984. "The Stepfamily Cycle: An Experiential Model of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3): 355-363.
- Skeen, P., R. B. Covi, and B. E. Robinson. 1985. "Step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uggestion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121-125.

- Turnbull, S. K., and J. M. Turnbull. 1977.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An Agenda for Discussion with Stepparents." *Family Relations* 32: 227-230.
- Wald, E. 1981. *The Remarried Family: Challenge and Promise*.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 Walsh, W. M. 1992.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709-715.
- Whithsett, D., and H. Land. 1992. "Role Strain,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of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3: 79-92.

A study on Programs for Enhancing Remarried Family Functioning

Kim, Yoon-Ok
(University of Seoul)

A little understood but rapidly growing phenomenon in our society is remarriage. By 2002, 21% of marriage involved the remarriage of one or both partners. Furthermore, the ratio of remarriage of women has outnumbered the ratio of remarriage of men, which is remarkable chang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putting a taboo on women's remarriag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perspective and the direction of programs for enhancing the remarriage family functioning. For the purpose, we explore the intrinsic vulnerability to family dissolution of remarriage and ill preparation for remarriage of people. There are unrealistic myths around, lack of informations on, absence of guideline for remarriage family life. Also, we discuss the process of remarriage family development, which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marriage shows totally different family structure and family interaction from first marriage nuclear family.

Based on discussion mentioned above, several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developing programs for remarriage family functioning. Above all, the family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remarriage is more useful paradigm rather than deficit-comparison perspective for remarriage family. Also, the programs for remarriage family functioning should challenge the unrealistic myths around remarriage such as the instant love between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the re-created nuclear family, etc. Also, several points such as the remarried family developmental stage, the disparity in expectation of man and woman on remarriage, and the tendency to scapegoat a stepmother should be considered in programs for enhancing remarriage family functioning.

Key words: remarriage, remarriage family, family functioning

[접수일 2004. 3. 4 게재확정일 2004. 4. 30]